

복숭아 유통개선을 위한 단계별 등급화 체계 연구

이기우 · 박재홍* · 이호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A Study on the New Peach Grading System in Stages for Efficient Marketing

Gi-woo Lee, Jaehong Park* and Hochol Lee*

Chongdo Peach Experiment Station, Ky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to suggest the most efficient peach standardization that is performed and is preferred by consumers to provide benefits for all of them. The data was collect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each standardization, consumption and consumer preference, and marketing situation by using interviews from peach producers, wholesaler and retailer, and consumers for three years (1997-1999). The most important standardization criterion at present was found to be a weight among peach producers, a color among wholesaler and retailer and consumers. In addition, sweetness was ranked first among the producers, wholesalers and retailers, and consumer if sweetness were detected without running peaches. Especially, consumers preferred to purchase small amount with small package and presented sweetness as the most preferred criterion. Thus, it is necessary for peach producers, wholesaler and retailers, and consumers to establish the small package standard and to subdivide the present system into several grades for performing the two-way system which labels grade with sweetness and weight.

Key words : peach grading, standardization, market channel preference

서론

우리나라 6대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는 경상북도 청도지역이 최대 주산지이며,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 생산농가들은 등급화·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가격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들은 비싸게 주고 구입한 복숭아가 맛이 없는 경우가 있

다고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엇보다도 복숭아 품질 선택의 우선 기준이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가 모두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수취가격 감소, 유통종사자는 '속박이' 재선별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로 이윤감소,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한 복숭아가 맛이 없어 가격 효율이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주로 15kg 및 10kg들이 골판지 상자가 포장상자 규격으로서 유통되고 있고 보조적으로 5kg 상자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날개로 10개 이하의 소량 구입을 하고 있고, 2kg들이

Corresponding author : Hochol Lee,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kyuk-Dong, 1370, Taegu, 702-701, Korea
E-mail : hclee@bh.knu.ac.kr

소포장을 적극 선호하여 찾고 있으며, 유통종사자들은 속박이 및 압상과에 의한 손상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매상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손자국으로 아침에 멀쩡한 복숭아가 저녁에는 시커멓게 멍이 들어 상품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포장화를 더욱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부터 제도적으로 실시된 「농산물표준규격」을 어느 한 농가에서도 준수하지 않고 생산농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선별 등급화하고 있다. 또한 유통종사자도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재등급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날개로 입의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급수를 살펴 보면 외관상 15kg 상자당 날개의 크기에 의한 과일수에 따라 품종별로 6등급으로 거래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농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히 유통종사자 임의로 등급수를 크기와 선별 상태와 맛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3~4개 등급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등급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이고 유통종사자까지도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급화 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숭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등급화에 관한 실태 및 의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여, 각 주체의 입장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표준규격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서 복숭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 각 주체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방향을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방법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의 실증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우선 1년차인 1997년도에는 청도군내에서 주산지인 화양읍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선과농가 40호, 개별선과농가 48호 등 총 88호의 복숭아 농가 등급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면접청취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년도인 1998년에는 복숭아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복숭아 소비실태 및 소비의향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대도시 소비자는 서울 150가구, 부산 100가구, 대구 50가구를 대상으로 동년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 각 지역별 여성회관을 방문 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의 대상자들은 가계의 소비지출 담당자인 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 Target group and methods

Target Group	Year	Sample Size	Method
Peach Producing Farms	1997	Joint Grading Farm: 40	Interview
		Individual Grading Farm: 48 (Total: 88)	
Consumers in Metropolis	1998	Seoul: 150, Pusan: 100, Taegu: 50 (Total: 300)	Written Survey
		Joint Market Staff: 14 Auctioneer: 11 Middlemen: 22명, Consignor: 5명, Distribution Center Staff: 1 Packinghouse Staff: 1명, Retailer: 20 (Total: 74)	

3차년도인 1999년에는 복숭아 유통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면접청취조사로 면밀히 파악하였다. 청도, 서울, 부산, 대구, 김해, 인천, 제주, 영덕 등 지역의 공판장 법인 혹은 조합 직원 14명, 경매사 11명, 중도매인 22명, 위탁상 5명, 물류센터직원 1명, 패킹하우스 직원 1명, 소매상 20명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결과 및 고찰

여기에서는 복숭아를 등급화하는 유통의 세 주체인 생산농가·유통종사자·소비자별로 각각 그 실태 및 의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 주체들의 입장차이를 조화시키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표준규격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복숭아 생산자의 등급화 실태 및 의향

복숭아는 경북이 최대 주산지로서 그 중 청도군, 경산시, 영천시가 전국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1). 우리나라 복숭아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경영규모가 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 복숭아 재배농가는 약 3만호로서 한 농가당 평균 0.37ha이며 0.5ha 미만의 농가가 75%이고 1ha 이상의 농가는 6%에 불과하다(2).

그리고 복숭아 과실특성상 수확적기의 폭이 좁고 장거저장도 곤란하다(3). 이는 복숭아의 가장 큰 특성이

기도 한데 수확직후 다른 과실보다 호흡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과실내의 당·산 또는 기타 양분이 소비되어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쉽게 물러지는 것이다(4). 특히 복숭아는 여름철 고온 및 장마기에 수확하게 되어 품질저하를 배가시킨다. 이와 같은 복숭아의 과실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등급화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복숭아는 먹어보지 않고 맛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크기가 큰 복숭아가 당도가 높다고 하여 관행적으로 크기별로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숭아 최대 주산지인 청도군의 경우에도 등급화에 관한 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몇 개 마을만이 실질적인 공동선과를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종량식 선과 기계에 의한 날개의 무게만이 유일한 등급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선진적인 청도군내 2개 마을의 공동선과농가 40호와 농가 개별선과만 하고 있는 이웃 마을 48호에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를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5).

공동 선과와 개별 선과시의 차이점

공동선과 농가들은 복숭아 날개의 무게 측정만 가능한 중형선과기 1대를 마을 작목반 공동선과장에 설치해 두고 있다. 자기의 복숭아가 선과될 때는 그 농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다른 농가들이 선별 작업자가 되어 흠집이 있는 복숭아를 육안으로 제거하고 날개의 무게별로 자동선과를 실시한다. 날개의 무게별로 15kg 상자에 패드를 깔고 난좌판에 3단으로 복숭아를 담은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개별선과 농가는 그날 수확한 복숭아를 개인 작업장내에 한 곳에 깔아놓은 다음 육안으로 굵기 별로 별도의 소쿠리에 담은 다음 15kg상자에 3단 포장작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두가지 선별포장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Fig. 1과 같다.

선별포장작업 과정에서 공동선과와 개별선과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공동선과의 경우 본인이 선별작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개별선과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복숭아를 15kg상자 난좌판 3단 중 아랫단에 다소 넣어 포장하는 '속박이' 경향이 있어 유통과정에서 하루만 지나면 아주 심하게 부패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곧 신뢰도와 직결되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포장작업과 등급화 작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등급화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포장재질이 골판

지라서 비가 올 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등급평가 기준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와 그 규격에 맞추어 출하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잘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한 농가는 소수(17%)인 반면 대부분이 '들어본 적 있는 정도이다' 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한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개별선과 농가는 '대충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한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규격에 맞추어 출하한다' 고 대답한 대부분의 공동선과 농가도 실상은 농산물표준규격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15kg들이 상자당 개수 구분에 의한 크기별 6등급 분류로 출하하고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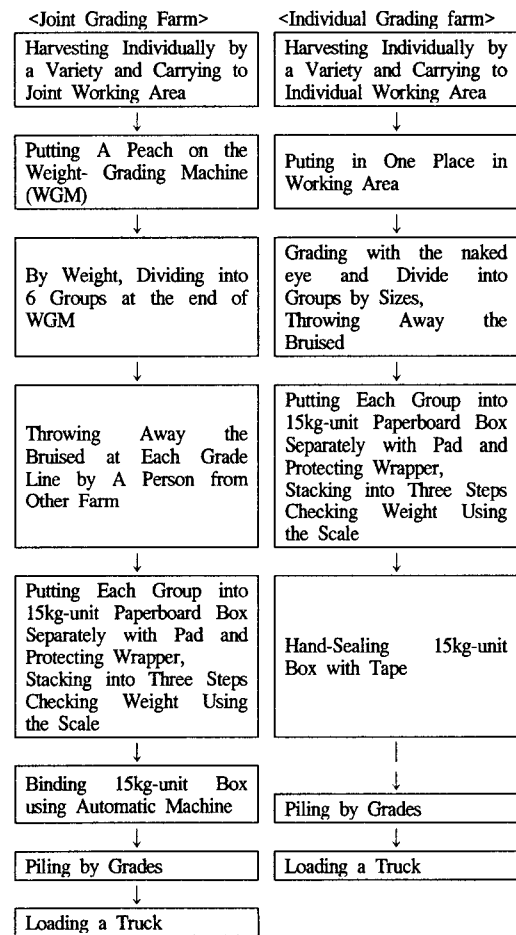


Fig. 1. The Differences Between Joint and Individual Grading.

지금 청도군내 농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복숭아 등급 기준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무게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색깔·모양·당도는 그 다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바람직한 선과 기준과 형태에 대한 인식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더 중요시하겠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Table 3에서처럼 공동선과 농가에서는 당도(맛)를 최우선 순위로 꼽은 반면 개별선과 농가에서는 여전히 무게, 색깔, 당도순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복숭아를 구입할 때 선택하는 우선 기준은 무엇이겠는가’라고 농가에게 질문하였을 때 이구동성으로 당도, 색깔, 무게순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소비자 3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하여 앞으로의 등급화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Table 2. The current peach grading criteria at a farm (%)

	Joint Grading Farm	Individual Grading Farm	Total
Size	59	50	54
Color	16	27	23
Shape	4	11	8
Ripeness	2	1	1
Sweetness	17	2	8
Vividness	1	1	1
Cleanliness	-	3	2
Freshness	1	5	3
Total	100	100	100

Table 3. The peach grading criteria at a farm in the future (%)

	Joint Grading Farm	Individual Grading Farm	Total
Size	25	36	31
Color	30	20	24
Shape	1	4	3
Ripeness	2	13	8
Sweetness	39	17	27
Vividness	0	1	1
Cleanliness	0	2	1
Freshness	3	7	5
Total	100	100	100

Table 4. Desirable grading structure in the future (%)

	Joint Grading Farm	Individual Grading Farm	Total
Small Size by A Farm	13	24	19
Medium Size by Co-op or Town	85	70	77
Medium Size by A Subcounty in Producing Area	2	4	3
Complex Large Size by Wide Area	-	2	1
Total	100	100	100

‘장차 선과형태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겠는가’란 질문에 Table 4와 같이 마을 작목반 단위로 선과하고 있는 공동선과 농가에서는 ‘마을 작목반 단위의 중형 선과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개별선과 농가에서는 ‘마을 작목반 단위 공동선과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기는 하였으나, 다소의 사람들은 여전히 ‘농가단위 개별선과가 더욱 나올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주산지 면단위 혹은 광역의 대형 종합 선과장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복숭아의 연약한 특성과 공동작업 및 등급화 비용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토로하였다. 한편 장차 바람직한 선과 형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한 선과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공동선과 경험이 있는 공동선과 농가에서는 노동력 및 경비절감도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한 반면, 공동선과 경험이 없는 개별선과 농가에서는 오히려 ‘가족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복숭아 유통종사자의 등급화 의향

복숭아의 유통경로는 대체로 생산자→산지공판장 혹은 소비지공판장→중도매인→위탁상 혹은 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6). 복숭아 유통종사자 중 공판장 법인 혹은 조합 직원과 경매사, 중도매인, 위탁상 혹은 소매상 등 모두 74명에 대하여 1999년도에 설문조사하였다. 이들은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와 청도지역 복숭아가 주로 판매되는 소비지인 부산, 서울, 인천, 대구, 제주지역 유통종사자들이다(7).

선과주체

대부분의 유통종사자들은 등급화에 관한 선과 주체로서 Table 5처럼 현행의 개별농가 선과 방법보다는 마을작목반 단위 혹은 면 단위 패킹하우스(8)에서 등급

화를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수의 중도매인 등은 현행 개별농가 선과방식이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신뢰도만 형성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 유통종사자에 의해서 재등급화할 수도 있으므로 좋다고 답하였다.

또한, 패킹하우스에서 비과과선과기로 정확한 당도 및 크기에 의한 복숭아 소포장 등급화를 하는 경우에 유통종사자의 수익 증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해 보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유통종사자들은 '손상품이 없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신용거래에 의해 판매도 증가할 것이므로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대답하였다. 그에 비해 소수의 중도매인 등은 재선별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므로 수익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Table 5. The main group of grading preferred by distribution agents (%)

Agent	Group	Individual Farm	Co-op.	Packinghouse	Total
Wholesaler in Producing Area		35.7	64.3	-	100.0
Wholesaler in Consuming Area		15.8	84.2	-	100.0
Retailer in Consuming Area		4.5	86.4	9.1	100.0
Total		16.2	81.1	2.7	100.0

Table 6. The criteria of choosing peach under present grading system in the market channel (%)

Agent	Criteria	Size	Color	Sweetness	Shape	Bruise	Total
Wholesaler in Producing Area		25.0	37.1	21.4	11.4	5.0	100.0
Wholesaler in Consuming Area		18.4	35.5	29.5	15.8	0.8	100.0
Retailer in Consuming Area		12.3	37.7	34.6	14.6	0.9	100.0
Total		17.8	36.5	29.5	14.6	1.6	100.0

Table 7. The criteria of choosing peach when the sweetness of peach is declared (%)

Agent	Criteria	Size	Color	Sweetness	Shape	Bruise	Total
Wholesaler in Producing Area		20.7	27.1	44.3	4.3	3.6	100.0
Wholesaler in Consuming Area		17.9	24.2	43.2	14.2	0.5	100.0
Retailer in Consuming Area		10.9	29.6	46.8	12.7	-	100.0
Total		16.3	26.4	44.5	11.9	0.9	100.0

현행 및 바람직한 등급평가 기준

복숭아의 등급수는 현재 도매단계에서 상자당 개수(30~80과)에 의해서 품종별로 6등급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개별 농가 혹은 지역의 신용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등급수로 가격이 차별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등급수를 몇 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유통종사자들은 현행 크기에 의한 6등급 분류가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우세하였다. 그에 비해 현행보다 2배 이상 즉 12등급 분류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었다. Table 6을 보면 복숭아의 품질기준으로는 현재 대체로 색깔, 당도, 크기, 모양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포장상자에 당도를 표기할 때 바람직한 품질기준으로는 Table 7에서와 같이 같은 가격이라면 맛(당도)을 우선 기준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색깔> 크기 순이었는데, 이는 소비자 설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등급화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당도표기만 된다면 생산자, 소비자, 유통종사자 모두가 당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등급화 의향

우리나라 복숭아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표준등급화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 11월에 서울·부산·대구의 복숭아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소비자를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를 감안하여 대구 17%(50명), 부산 33%(100명), 서울 50%(150명)로 배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등급화 실태 및 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구입시 선택기준

복숭아를 구입할 때 맛을 보고 구입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거의 먹어보지 않고 그냥 구입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맛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내 소비자의 30%와 250만원 소득수준의 33%가 반드시 먹어보고 구입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복숭아에 있어서 맛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먹어보지 않고 복숭아를 구입하는 경우에 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색깔이며 다음으로 크기, 모양, 아주 작은 흠집여부순이었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아주 작은 흠집여부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였다.

Table 8. The criteria of choosing peach under present grading system

Criteria	Size	Color	Sweetness	Bruise	Shape	Total
Percentage	25.9	40.7	-	13.9	19.4	100.0

향후 당도 표기시 구입기준

만약 당도 표시를 한 소포장 상자에 담은 복숭아를 판매할 경우 품질선택우선기준으로는 맛(당도)을 첫번째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색깔, 크기, 아주 작은 흠집 여부, 모양순으로 선택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구분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20대 연령층에서 아주 작은 흠집여부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였다(Table 9).

Table 9. The criteria of choosing peach when the sweetness declaration of peach is available in the future

Criteria	Size	Color	Sweetness	Bruise	Shape	Total
Percentage	19.0	24.9	41.0	7.9	7.2	100.0

선호하는 복숭아 종류와 등급

복숭아 맛은 주로 아주 단맛을 좋아하였고, 20대 연령층에서는 주로 달고 신맛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였다. 자기 가정에서 소비하는 복숭아는 대체로 2등급 수준을 좋아하였고 1등급 혹은 3등급도 상당히 있었다. 특히 서울지역과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가정에서도 1등급 복숭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또한 선물용 복숭아 등급으로는 1등급이 60%, 2등급이 40% 정도 선호되었는데, 서울지역과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선물용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복숭아 구입시 편리하고 바람직한 등급수로는 3~4개 등급구분을 가장 선호하였다.

소비자가 원하는 복숭아 포장상자 크기

먼저 소포장 복숭아 상자에 당도 표시를 하여 등급별로 판매할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 경우 '상자에 대한 추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고 한 사람이 44%, '모르겠다' 고 유보한 사람이 약 20%였다. 한편, 당도를 표시한 소포장의 상자 크기로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g 복숭아 8개들이 2kg 상자 규격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이 12개들이 3kg 상자, 4개들이 1kg 상자 규격순으로 현재의 규격 상자보다 작은 상자를 소비자들은 적극 요구하고 있었다.

Table 10. Packing sizes preferred by consumers (%)

Box Size	1kg	2kg	3kg	4kg	5kg	over 5kg	Total
Percentage	16.0	38.2	34.1	4.8	6.5	0.3	100.0

바람직한 복숭아 등급화 개선방향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비자들은 맛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생산자들은 여전히 현실적 제약 때문에 무게 위주의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2kg 정도의 소포장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생산농가에서는 5kg, 10kg, 15kg 포장단위만을 취급하였다. 만약 2kg 소포장상자에 당도표시를 하여 판매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데도 생산자들은 아직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숭아 유통종사자들은 대부분 마을작목반 단위 혹은 면단위 패킹하우스에서 공동선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패킹하우스에서 비파괴선과기에 의한 정확한 당도 및 크기로 복숭아 소포장 등급화를 하는 경우에 유통종사자들은 대부분 손상품이 없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신용거래에 의해 판매도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종사자에게도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대답하였다. 복숭아의 등급수는 현행 품종별 크기별로 6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비파괴선과기에 의한 당도표시로 소포장되어 판매될 경우 바람직한 등급수에 대해서는 당도별·크기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도별 3단계와 크기별 6단계의 조합인 18등급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현재 유통종사자의 복숭아 품질선택기준은 색깔>당도>크기순이었으나, 향후 광센서에 의한 당도선별기를 활용하여 날개마다 당도를 알 수 있을 때 복숭아 품질선택 기준을 당도>색깔>크기순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결국 유통종사자들도 당도표시를 할 수 있다면 당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택하겠다고 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와 아울러 유통주체 모두가 당도표시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복숭아 등급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길, 즉 복숭아 생산농가·유통종사자·소비자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는데, 복숭아 생산농가와 유통종사자들은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광센서를 이용한 비파괴 당도선과기로 당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장차 비파괴선과기를 이용할 경우 복숭아 날개마다 당도와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복숭아 포장상자 거래단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한 유통종사자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였지만, 대체로 소비자를 위한 소포장과 도매거래를 위한 외포장을 합성한 포장용기 개발에 적극 찬성하였다.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쉬우면서 만져서 명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산지 패킹하우스에서 당도별로 1~2kg 정도의 소형 투명상자에 뚜껑을 닫아 포장하고 도매단계에서 거래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1~2kg 소형 투명상자 몇 개를 모아 대포장할 수 있는 플라스틱용기를 개발하여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유통종사자들은 대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그 회수가 곤란하고 공간이 좁은 도시 점포에 쌓아두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위생, 환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포장용기도 1회용인 골판지를 우선 사용하다가 정착될 경우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구체적·실천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포장상자에 당도를 표시해야 한다.

장차 몇 년 후 비파괴 선과기에 의한 당도측정으로 소포장되어 판매될 경우 바람직한 등급수는 몇 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란 물음에 유통종사자의 답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공판장의 법인 혹은 조합 직원과 경매사, 산지공판장의 중도매인 등은 주로 당도별 3등급과 크기별 6등급의 조합인 18등급으로 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한 반면, 소비자 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소매상인들은 소비자의 입장을 잘 헤아린 듯 주로 당도별·크기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선과장은 1993년부터 당도 선과시스템을 운영, 당도별 5등급과 크기별 8부류의 조합으로 총 40분류로 구분하는 판매전략을 채택한다. 그 중 '로얄사이즈'는 당도 13도(Bx) 이상으로 2kg 상자에 5~8개를 넣어 특수우레탄 포장으로 주문 판매하고 있다. 또 '킹 사이즈'는 당도 13도 미만 11도 이상으로 4kg 상자에 11~13개를 넣으며, '퀵 사이즈'는 당도 11도 미만 당도보증 복숭아를 4kg 상자에 14~16개를 넣어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백봉, 홍청수, 청수백도, 천중도백도, 백도, 황금도, 조생 고당도 계통 복숭아를 대상 품종으로 선정해 두고 있다.

복숭아 품질선택 기준을 소비자에게 맞추어야 한다.

장차 비파괴선과기가 보편화되어 복숭아 날개마다 당도가 측정되어질 경우에는 유통종사자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맛(당도)'을 우선 기준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색깔, 크기순이었는데, 이는 소비자 설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등급화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동선과 농가에서는 '맛(당도)>색깔>무게(크기)' 순의 견해를 보였다. 반면 개별 선과 농가에서는 복숭아의 연약한 특성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공동선과시 취급부주의 및 책임성 때문에 '무게(크기)>색깔>맛(당도)' 순을 고수하였다.

열등품의 지역외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

등외품이 아닌 생과용 열등품 복숭아를 지역 밖으로 판매하지 말자고 조례를 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소매상인 및 소비자 중도매인과 다수의 법인은 열등품 복숭아 판매를 억제하는 것이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숭아 열등품의 판매 억제에 대해 유통종사자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 측면에서 청도군의 독점품이 아니어서 타 지역 복숭아 생산농가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보아 복숭아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될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기호품인 복숭아 구입을 아예포기하게 되어 1년 중 복숭아 맛도 못 볼 수 있으므로 열등품도 거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취급 물량이 너무 적게 될 경우 유통종사자의 수익 감소도 은근히 걱정되는 면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은 품질향상에 더욱 힘을 쏟게 되어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고 유통종사자들은 손상품 발생 걱정을 없앨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기호에 맞는 복숭아를 믿고 사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어(가격효율 증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복숭아 등급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이고 유통종사자

까지도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급화 방안의 모색을 위해 복숭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등급화에 대한 실태 및 의향을 조사 분석하여 각 주체의 입장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생산농가, 소비자 및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와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복숭아 농가 등급화실태, 소비실태 및 소비의향,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현행 등급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생산농가에서는 무게를,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는 색깔로 나타났으며, 무게와 색깔은 복숭아를 먹어보기 전에 맛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향후 비파괴 당도선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농가, 유통종사자, 소비자 모두가 당도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소비자는 당도를 가장 중요시하며 소량구입 및 소포장 상자규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비롯하여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복숭아 표준화, 등급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부포장규격을 신설하고 등급을 당도와 무게 범위로 표시하는 이원적인 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농림부 (1997) '97 과수실태 조사
2. 유영산, 강상조, 김선규, 성진근, 추연대 (1999) 복숭아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경영, 농민신문사, p.23
3. 유영산, 강상조, 김선규, 성진근, 추연대 (1999) 복숭아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경영, 농민신문사, p.16
4. 유영산, 강상조, 김선규, 성진근, 추연대 (1999) 복숭아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경영, 농민신문사, p.303
5. 이호철, 석태문, 이기우, 서상화 (2000) 우리나라의 등급화 전략, 농민신문사, p.165-168
6. 김동태 (2000) 시장과 유통, 다솔원, p.11-21
7. 이기우 (2000) 복숭아표준규격 개선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0
8.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경북능금의 표준화·등급화 개발방안 연구, p.71
9. 이기우, 석태문, 이호철 (2000) 복숭아 고품질화를 위한 표준화·등급화 전략, 한국식품유통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120-121

(접수 2000년 9월 20일)